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8월 17일 (제 1319 호)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안목(眼目)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안목이 있어.', '안목이 탁월해.'라는 말을 한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혹은 기회와 사건 속에서 본질과 가능성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안목'의 뜻을 성경 속에서 찾았다. '안목'이란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사무엘은 장남인 엘리압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 그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라고 생각했다. 안목이 좀 짧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으셨던 거다.

바울도 안목이 있는 자였다. 빌레몬서에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변호한다. 남들 눈에는 오메시모가 그저 종에 불과했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았다(몬1:11).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본 것이다.

언젠가 어느 장로님의 요청으로 외곽에 있는 어느 집을 보러 갔다. 넓은 마당이 있었으나 집은 아주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을 둘러보고 장로님에게 "이 집을 사십시오. 마당에 있는 저 나무들은 이 집값을 웃도는 것들입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라고 말해줬다. 나도 나름 안목이 있는 사람이지 않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 장사는 그냥 장사치가 아니라 안목이 있는 사람,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다. 최고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에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 그 진주를 산 것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영적 안목이 있기를 원한다. 눈앞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물질을 좇느라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영의 안목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세상의 눈을 버리고 영적인 안목을 갖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시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청소년 수련회, 여름 성경캠프, 그리고 산상집회 등, 정해진 일은 금방 지나가니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였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다.

하계산상집회 둘째 주 첫날 집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주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셨다.

"지난 1994년, 캐나다 몬트리올 집회 중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라는 음성을 들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하며 뱀을 연구해보았다. 뱀은 몸의 모든 기관을 사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뼈가 있으나 없는 듯 속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든 환경에 맞게 변하는 변화무쌍함을 가졌고, 목적을 이룰 때 소리 없이 이루더라. 뱀처럼 지혜로우면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지혜가 제일이다(잠4:7).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잃어버린 것을 다 찾을 수 있다. 만물이 돕는다. 성경에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고(고전1:27),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졌다(고후6:10)는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만든 자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잠2:7).

가장 지혜로운 자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는 자다. 그런 자는 첫 번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고, 두 번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며, 세 번째, 바다에 그물을 던져 잡은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고르고 못된 것은 내어보내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런 자는 천국생활(마13:44~48)을 하게 된다.

만물을 상품으로 보는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간접자본을 활용한다. 멕시코 집회 가는 길에 미국 시카고를 경유했을 때, 최 장로라는 분이 찾아와 상담을 원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말하길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열매를 수입해서 들여오고 싶은데 법으로 막혀 있다는 거다. 들여오기만 하면 대박 나는 열매란다. 나는 그에게 조언하기를, '왜 열매에만 고착되어있는가? 그 나무의 묘목을 들여와 땅을 사서 심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 장로가 무릎을 치며 기뻐했고, 정말 그대로 실행에 옮겨 큰 수익을 보았다. 이것이 지혜다. 길은 언제나 있다. 찾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고전2:9). 정직한 자세로,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자!"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할 수 있다.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당신 스스로를 '100점 받은 목사'라고 당당히 말씀하신다. 그렇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목사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당당히 '내가 100점 받은 성도'라고, '내가 전대미문의 복을 받았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3주 연속으로 진행된 청소년 수련회부터 산상집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시간 시간마다 열정과 혼신을 다해 가르쳐주신 총회장 목사님과 교단의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윤에녹 생도
dbsdlsgh12345@naver.com

2025 하계산상집회(8월 4일~1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엘살바도르 집회

2025년 9월 2일~12일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20~21)

실탄 없는 총 갖고 겁주지 말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K-방산이라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전차, 장갑차, 신궁 대공 유도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전쟁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자주국방을 위해 무기를 도입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 없이 일할 수 없고 무기 없이 승리할 수 없다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영적 전쟁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성능, 최첨단의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주포나 장갑차, 드론같이 무기가 다양하듯 영적 무기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듯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고전12:8~10).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는 은사, 곧 무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곧 영적 무기는 말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받습니다(행1:8).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이 무기는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볼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9)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첫 대면에서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모래알처럼 많은 악한 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떡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대적을 물리치려면 무기가 꼭 있어야 하기에 '성령'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고(행2),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는 말씀을 이룬 것이 그 예입니다. 제가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기도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활발히 역사하십니다. 핸드폰을 쓰면 다시 충전해야 하듯 성령도 기도로 늘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총은 있으나 실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포에 포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하신 것입니다.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충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탄 없는 총을 들고 폼 잡는 자입니다. 그거 귀신이 툭 건드려보면 압니다. 빈총인지 실탄이 들었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덤빕니다. 곰이 달려든다고 합시다. 실탄이 있으면 방아쇠를 당겨 위협을 가하든지, 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빈총이라면 도망가기 바쁘죠. 곰이 총만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총을 쏠 때 도망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엄습할 때 성령충만을 입은 자는 바로 '빵'하고 쏩니다. 귀신은 완장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방아쇠를 당겨 실탄이 나갈 때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총은 들고 있는데 실탄이 없으면 귀신이 '이거 무늬만 크리스천이구먼.' 하고 맘대로 가지고 놉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다들 양복에 멋진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컷 맛있는 거 먹고 놀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돈 낼 때가 되면 서로 미루느라 괜히 구두끈을 오래 매고 있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퍼 차림이었지만 지갑이 두둑하니 망설이지 않고 계산대로 갔지요.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합니까? 지갑이 명품이면 뭐합니까? 지갑 속에 돈이 있어야 행세를 하지요. 실탄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제발 돈 없는 명품 지갑 들고 자랑하지 마세요. 실탄 없는 총 들고 폼 잡지 마세요. 귀신이 안 속습니다. 실탄을 채우고 돈을 채워 귀신들을 당당하게 물리치세요. '빵' 쏘세요. 돈 척 내놓으세요.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빵빵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를 하셨고(막1:35),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이르러 저녁에 기도하셨고(눅5:16),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마14:23). 제가 하루 4~7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막9:29).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아직 불씨가 살아있을 때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을 때 붙여야지, 불씨가 아예 사그라져버리면 다시 살리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하루 여섯 시간 이상 기도한 것은 혹 불이 꺼진 자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요, 시들한 불씨가 살아나 훨훨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도적이 들어와 빼앗아 가고 해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왔을까요?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어둠이 들어온다니까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자입니다. 사후에 약방문을 두드리는 자입니다.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점검해야지요. 살아있을 때 건강에 투자해야지요. 불씨가 살았을 때 기름을 부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천상천하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롬8:9~12). 성령을 소유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며(요16:8), 우리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요16:13),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시니 가장 좋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도 알게 하시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고전2:10)?

잃어버린 무기와 잃어버린 돈을 되찾자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행1:8), 그러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고(막9:23),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며(막16:17~18),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됩니다(요14:12).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기도로 채워집니다. 무기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이 실직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지급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다시 찾아오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로 악한 것들을 진멸하여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2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 실황을 방송으로 중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 성도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3대의 카메라가 잡아내는 장면 가운데 실제 영상으로 중계되는 모습은 그중에서 선별된 장면이다. 물론 생중계이다 보니 가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정돈된 장면을 골라 중계화면에 내보내게 된다. 각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성도들의 예배 장면을 탐색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화면 믹싱을 담당하는 조정실에서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다. 한때 카메라 화면에 천사를 잡아보겠다는 카메라맨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바로 천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얼굴은 그야말로 해같이 빛난다. 또한 가슴으로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얼굴은 함께 깊은 감동에 젖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인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요,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우리 마음도 이토록 움직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고, 때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생명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에 전심전력하고, 그 터널을 통과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없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다.

숱하게 화면에 잡히던 성도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고, 새로운 얼굴로 대체되어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을 이어간다. 30여 년 넘게 이 일에 종사하다 보니 화면에 담겼다 사라지는 성도들도 많고,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항구여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들도 많다.

세월은 거침없이 흐르고 어느새 3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돌아보면 그 지난했던 한순간, 한순간이 그저 꿈같은 기분이 든다. 예전에 노인들이 '인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 했던 말이 실감이 된다.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시간들이 지난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어찌 그리 짧은 이야기처럼 생각되는지,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어느 날에 이르면 우리 인생도 일장춘몽처럼 느껴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월을 아껴야 하고(엡5:16),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전12:13)이라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아멘 또 아멘.

Henry Han

:: 오늘의 메시지 ::

예수만 바라보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결과는 토끼의 패배로 끝났다.

이유는 간단하다. 토끼는 푯대를 바라보지 않고 상대인 거북이를 바라본 것이고, 반면에 거북이는 묵묵히 푯대만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망하며, 그 믿음을 통한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왜인가? 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물 위를 걸었으나 물결을 보는 순간 빠졌다(마14:28~30). 가룟 유다가 예수만 보다가 돈에 눈길을 뺏기는 순간 배신하게 된다(마26:14~16, 요12:4~6).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고(막5:25~34), 소경 바디매오 역시 예수만 의지하며 부르짖었을 때 눈을 떴고 (막10:46~52), 들것에 들린 중풍병자는 예수를 향해 지붕까지 뜯었더니 나음을 입었다(막2:3~5).

목사님은 목회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고 앞을 향해 가셨기에 오늘의 성공자가 되셨다고 간증하시며, 당신을 닮으라고 강조하신다. 사슴 잡으러 갔다가 토끼에 눈길 뺏기지 말고, 산삼 캐러 갔다가 도라지에 미혹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하신다.

우리 이제 변함없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영·혼·육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은혜와 응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김상욱 목사**

:: 빛과 소금 ::

주님이 베푸신 잔치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여름이면 영적인 잔치가 열린다. 수련회, 성경캠프, 산상집회로 이어지는 3주간의 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초대하신 은혜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더 풍성해지고 감사와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성도들을 자식처럼 아끼는 목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더욱 감동이 질다.

이 잔치의 또 하나의 큰 축복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신나는 캠프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학생들은 잠시나마 학업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잠시 세상의 경쟁과 책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께 나의 결핍과 갈급함을 적극적으로 아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매일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커피를 대접받는 이 행복함도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잔치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세상에서는 '공짜'라 하면 의심부터 하게 마련이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잔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 은혜는 세상의 공짜와는 완전히 다르다. 덜 가치 있어서 무료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무료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Priceless한 은혜이다!

이렇게 귀한 영적 대잔치를 열어주시고 초대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해 먹이시고 섬겨주신 목사님, 그리고 기도와 물질, 시간, 봉사로 아낌없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린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55:1).

송지혜 집사
hello-english@naver.com

:: 생명의 말씀 ::

창조 신앙이 답이다

미국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경에 대한 믿음이 떠난 이유로 상당한 비율이 학교에서의 진화론 교육을 꼽았단다. 진화론을 배우는 중학교 시절부터 성경에서 마음이 멀어져 점차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진화론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싶은 또 다른 신앙 체계다. 그 사상으로 기울어지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상(하나님, 천사, 인간, 마귀, 귀신)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물질세계뿐이다.

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 장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문화를 통해 인간의 정신영역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모든 것이 우연히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뚜렷한 목적이 없다. 인간의 본능이 더 중요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진화론적인 위협도 본인이 행복하다면 선으로 여긴다. 절대적 창조질서의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교육현장이 우려스럽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그 주도권을 빼앗은 것이다.

사실 나도 자녀 셋을 둔 부모로서,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2009년을 기점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한 학기 동안 거대한 진화론 시나리오를 강제로 주입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우주의 기원부터 인류의 출현까지를 창조주 하나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진화 스토리로 엮어서 가르치니,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종교 설화로서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된다. 이런 사상이 서서히 국민 상식이 되어 가면, 학교 교육은 다양성 있고, 중립적이고, 과학적인데 반해, 교회 교육은 창조신앙만을 가르치는 일방적이고 편협한 미신이라고 폄하하게 된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서로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언약백성의 삶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온 세상의 창조주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창조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살아난다.

이번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총회장 목사님이 가르치신 창조신앙(성공한 사람은, 창조의 법칙을 따른 자들이다) 교육은 참으로 시기적절했다. 성경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교육현장 속에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확실한 기준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송직화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볼 수도 만질 수도 있는 믿음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합니다. 12월부터 여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고생 좀 했습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냉방 때문에요. 바깥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리며 한증막이 따로 없는데 실내에만 들어서면 에어컨 바람이 겨울처럼 불어와 몸에 한기가 들더라고요. 어느 날엔 급기야 콧물이 나오더군요. 혹시 몰라서 코로나 진단키트로 검사해보니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미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오고 코를 훌쩍이는 것 말고는 별다른 증세가 없어 이러다 금세 좋아지겠지 했어요.

며칠이 지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간간이 기침도 나고 목소리도 잠겼지만 컨디션은 괜찮아서 여느 때처럼 아침에 수영하고 마스크 쓰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눅진한 피로가 몰려오더라고요. 오후 4시쯤 외근을 마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어야 저녁 수요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거 같았어요. 집에 오자마자 씻을 힘도 없어서 편한 옷으로만 갈아입고 거실에 철퍼덕 누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7도를 웃돌던 날씨였는데 그날은 비가 쏟아져 으슬으슬하길래 난로를 꺼내 가장 높은 온도로 켜고 그 옆에 몸을 둥글게 말아 누웠습니다. 기침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몸 상태는 바닥을 쳤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일단 저녁 7시까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눈을 떠 보니 오후 6시.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콜록콜록. 다시 눈을 떠 보니 오후 6시 30분. 몸이 천근만근, 열도 나는 듯했습니다. 콜록콜록. 어느새 오후 6시 50분. 도저히 밖에 나갈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 얼른 전도사님께 연락드려 헌금위원 봉사를 못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콜록콜록. 누구라도 이 몸으론 가기 힘들 거야. 콜록콜록.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지금 상태로는 설교만 틀어놓고 누워서 곯아떨어질 게 분명한데…. '교회 가서 제대로 예배드리자.'

택시를 불러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려 했는데 하필 비가 많이 내려 택시가 대중교통보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땀으로 축축해진 몸을 수건으로 닦고 헌금위원 하복 대신 따뜻한 춘추복으로 갈아입고 발이 젖지 않게 레인부츠를 신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차를 타고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이 넘게 걸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을 달라고요.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 지나서까지도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혔던 기침은 완전히 멈춰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었고, 예배를 마칠 즈음이 되자 비로소 평소 컨디션으로 돌아와 헌금위원 봉사도 가뿐히 하고 집에도 거뜬히 갔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저도 낫게 하실 거란 믿음, 그 믿음이 그날 수요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헌금위원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한여름에 춘추복을 입고서라도 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자마자 십일조부터 떼게 했죠. 나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여름휴가를 기도원으로 가게 했고요. 저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8).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기도와 의무의 조화로운 신앙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삶의 의무와 책임도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과 섭리를 분별해 가야 한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어쩌면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강가를 지나가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다고 해보자. 다행히 근처 나무에 구명대가 걸려 있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직접 물에 뛰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구명대를 던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우려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기도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만일 구명대를 던지지도 않고 구조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면 어떨까? 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 기도 없이 우리 의무만 감당하려 한다면, 우리는 곧 지치고 탈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가끔 '기도' 자체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듯, 기도와 행함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도했으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기도했으니, 오늘은 안전할 것이다."
"기도했으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이용한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며, 기도와 함께 성실히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도록 항상 기도하며, 동시에 모든 일에 있어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진정한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 참된 깨달음 ::

헌신

얼마 전, 팔순이 되신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지만,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이석증이었다. 응급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다.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셨기에 늘 꼿꼿하게 걷던 분이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젊음은 오롯이 가족을 위한 헌신의 시간이었고, 그 보살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팔순이 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부모의 헌신 덕분에 자녀가 든든히 설 수 있듯이, 교회 역시 목사님,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한결같은 헌신 위에 세워졌다. 최근 장로님, 권사님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변함없이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시던 그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누군가는 강단에 꽃을 꽂고, 또 누군가는 설교단을 만들고, 의자를 나르고, 구석진 곳을 묵묵히 쓸어내는 손길들이 모여 오늘의 든든한 예수중심교회가 되었다. 비록 세월 앞에서 육신은 쇠해가도, 그분들의 불같은 신앙과 섬김은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욱 빛나는 것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 값진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한다.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533. 9191